

『纂圖方論脈訣集成』에 관한 研究

張溶祐 · 白上龍^{*} · 丁彰炫^{**}

慶熙大學校 한학과대학, ^{*} 韓國韓醫學研究院, ^{**} 교신저자

Abstract

A Study on the 『Chandobangronmaekkyulgipsung』

Jang Ryongwoo, Back Sangryong^{*}, Jung Changhyu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 are 4 major diagnoses. They are "Mang (Watching)", "Mun (Listening)", "Mun (Asking)", and "Jeul (Touching)". These way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mong the four, "Jeul" is the most famous one because it is the final way of checking the pulse for the cure. Pulse checking has been used as an essential way of diagnosis, bu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doing so in the business matt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theories should be studied profoundly and heterogeneously. More importantly, these endeavors must be pursued on the basis that pulse-checking must be done along with other diagnostic ways to diagnose more precisely and practically. Therefore, I want to study and analyze the pragmatic ways to help the business field.

Wang Suk-Hua(王叔和) arranged the methods and theories of 'pulse-checking' that was used before Nea-kyung. The book is called Maek-kyung. But this is too complicated to use in the field. As a result Maek-kyul(脈訣) which is made of songs that help to memorize and practice was gain more popularity than the 『Maekkyung(脈經)』 itself. But the songs are so simple and compact that the offsprings annotated this book again and made books consist of these annotations. Among these books 『Chandobangronmaekkyulgipsung(纂圖方論脈訣集成)』(1349) which was written in Won(元) dynasty was imported to Cho-sun(Korea) and used as the most important book on pulse-checking. So I will study 『Maekkyul(脈訣)』 which contains the essence of 『Chandobangronmaekkyulgipsung(纂圖方論脈訣集成)』.

And I will also study 『Dojumaekkyul(圖註脈訣)』 and 『Maekkyulyouhae(脈訣乳解)』 as conference. The former, written by Jang-sae-hyun(張世賢), contains narrative paintings and prescriptions according to pulses. And the latter, written by Wang Bang-bu(王邦傳), contains criticism of earlies annotations along with his own theory.

『Chandobangronmaekkyulgipsung(纂圖方論脈訣集成)』 was chosen as a text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ccording to 『Kyungkukdaejun(經國大典)』, and had been used during Cho-sun dynasty after closely corrected by Heo Jun(許浚). It means, during Cho-sun Dynasty, everyone who wants to become doctor had studied pulse-checking through this book, and also means Cho-sun medicine emphasizes practicality. This book and the pulse-checking part of 『Dongeibogam(東醫寶鑑)』, which published later, made the main frame of pulse-checking during Cho-sun Dynasty.

As above, studying 『Chandobangronmaekkyulgipsung(纂圖方論脈訣集成)』 which was major textbook of pulse-checking in Cho-sun, helps to study pulse checking itself as an important way of diagnosi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more than that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pulse-checking during Cho-sun dynasty.

With these reasons I studied 『Chandobangronmaekkyulgipsung(纂圖方論脈訣集成)』 conferring 『Dojumaekkyul(圖註脈訣)』 and 『Maekkyulyouhae(脈訣乳解)』 to understand 『Maekkyung(脈經)』 which is practical book of pulse-checking. During so I got some achievements and I report it as follows.

Key words : Maekkyul, Heojun, dongeibogam, Dojumaekkyul

I. 序論

한의학의 진단 방법은 크게 望聞問切의 四診으로 나누며 각각의 진단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중 切診은 주로 脈診을 의미하며 한의학의 대표적 진단법으로, 치료를 하기에 앞서 질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脈診은 이와 같이 한의학의 중요한 진단법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脈診의 이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진단법과 연계하여 진단의 정밀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치료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실용성의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임상에서 실제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脈診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內經』이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다양한 脈診 방법과 이론들은 王叔和의 『脈經』으로 총 정리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많고 번잡스러워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脈經』의 어려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脈訣』이 『脈經』보다 더 유행하였다. 그러나 歌訣로 만들다 보니 지나치게 간결하고 다소 허술한 면이 있어,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주석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그러한 주석들을 모은 다양한 註釋書가 나오게 된다.

그러한 註釋書들 중에 元代에 『纂圖方論脈訣集成』(1349)이라는 脈診書가 있었는데, 이 책은 일찍이 조선에 수입되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脈診書로 활용되었다.¹⁾ 그렇기 때문에 『纂圖方論脈訣集成』을

통해 脈診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는 『脈訣』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 脈診에 참고가 될만한 圖解와 맥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 張世賢의 『圖注脈訣』과 이전의 주석을 비판하고 참고하여 본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王邦傳의 『脈訣乳海』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았다.

『纂圖方論脈訣集成』은 『經國大典』에서 醫科시험 취재 교재로 규정하였으며, 許浚의 엄정한 교정을 거쳐 조선시대 내내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의학도가 診脈의 기초를 이 책을 통해서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의 의학이 실용성을 중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후에 출간되는 『東醫寶鑑』의 診脈 부분과 함께 조선시대 脈診의 체계를 이루어 醫學의 紀綱을 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脈診의 기초를 공부하는 중요한 교재였던 『纂圖方論脈訣集成』을 연구하는 것은 한의학의 중요한 진단법인 脈診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선시대 脈診의 실용적인 발전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脈診의 실용서인 『脈訣』을 연구하기 위해, 『圖注脈訣』과 『脈訣乳海』를 비롯한 연관서적을 참고하여 『纂圖方論脈訣集成』을 연구함으로써 조그만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한의학의 중요한 진단법인 脈診을 이해하고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시대 내내 醫科시험 취재 교재로 사용된 『纂圖方論脈訣集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먼저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淵源과 板本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構成과 內容을 검토하여,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意義와 特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淵源 및 板本

脈診의 유래를 살펴, 脈診의 핵심을 歌訣로 함축하고 있는 『脈訣』 註釋書인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淵源을 밝히고, 그 板本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淵源

脈診의 유래는 『內經』이전부터지만 그 진정한 출발은 王叔和(201~280;?)의 『脈經』十卷이라 할 수 있다. 『脈經』은 王叔和가 『內經』, 『難經』 및 扁鵲, 華佗, 張仲景 등 관련 문헌에서 摘錄한 것으로 실제로는 編纂이지 著述은 아니다.²⁾ 하지만 三國이전의 진단 자료를 총 정리한 최초의 脈診 전문서이기 때

1) 미키사카에(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295. [李朝醫學及鍼灸醫 取才 時講書 變遷表]

| 세종12년 | 세조10년 | 성종2년 | 성종3년 | 성종16년 (의 학) | 성종16년 (침구학) | 영조2년 | 고종2년 |
|-------|-------|------|------|----------------|----------------|------|------|
| 纂圖脈 | | 纂圖脈 | 纂圖脈 | 纂圖脈 | 纂圖脈 | 纂圖脈 | 纂圖脈 |
| 銅人經 | 銅人經 | | 銅人經 | 銅人經 | 銅人經 | 銅人經 | 銅人經 |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直指方 |
| 得效方 | | 得效方 | 得效方 | 得效方 | | | |
| 和濟方 | | 和濟方 | 和濟方 | 和濟方 | | | |

이와 같이 1430년(세종12년)에 처음 시작된 醫科시험의 취재 교재로 채택된 이후 조선 후기(고종 2년)까지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2) 『脈經』은 이전의 맥법을 총괄적으로 정리 하였는데 특히 五卷은 張仲景論脈, 扁鵲陰陽脈法, 扁鵲脈法, 扁鵲華佗察聲色要訣,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로 구성되어 扁鵲, 華佗, 張仲景의 맥법에 관한 기술을 정리하여 진귀한 의학 문헌을 보존하였다.

문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손목을 寸關尺으로 나누어 짚는 三指氣口脈法과 左人迎右氣口の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맥을 짚는 각 부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질병의 계통을 확립하였고, 모든 병의 상태를 24개 脈象으로 정리해 냈다.³⁾

『脈訣』 역시 王叔和 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高陽生의 撰으로, 그 내용이 대개 『脈經』에서 취한 것이므로 王叔和 『脈訣』이라 이름 한 것이라고 추정한다.⁴⁾ 또 최초로 脈診 전문서를 출간한 王叔和의 이름을 빌어 『脈訣』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려는 의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六朝때 인물인 高陽生은 脈診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脈經』의 내용을 추려 七言絶句의 歌訣로 된 『脈訣』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許濂이 校正한 『纂圖方論脈訣集成』의 底本이 된 책이다. 『脈訣』은 겨우 한권이지만 내용이 간략하고 歌訣로 되어 있어 기억하고 활용하기가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臨床家에게 준 영향은 『脈經』보다 크고 심지어 『脈經』의 지위를 빼앗아 버리기도 했다.⁵⁾ 이러한 『脈訣』은 단지 『脈經』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3卷에서 脈象을 七表(몸 겉의 상태를 나타내는 7개의 脈象), 八裏(몸 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8개의 脈象), 九道(몸의 겉과 안을 겸하는 9개의 脈象)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맥상을 실용적으로 분류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脈訣』은 脈診의 핵심을 歌訣의 형태로 축약하여, 임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실용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선 원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脈訣』이 유행한 이후 唐宋金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註釋을 붙였는데, 元代의 한 인물이 그러한 설명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纂圖方論脈訣集成』 原刊本(1349)이다.⁶⁾ 제목으로 보아 맥과 관련된 그림, 맥에 관한 이론과 처방, 맥에 관한 노래를 모두 모은 책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校訂本에는 그림이 실려 있지 않다.

脈診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맥을 잡아서 脈象을 정확히 감별하고, 사람의 形色과 症狀 時令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纂圖方論脈訣集成』의 연구도 이러한 端緒를 찾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纂圖는 脈診과 연관되는 그림들로 脈診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部位, 脈象 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다 현실감 있게 전하기 위한 방편인데 생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內醫院에서 출간하여 의학도들을 교육하고 醫科시험을 치루는 교재였기 때문에 徒弟式 교육이 이루어졌고, 徒弟式 교육에서는 그러한 그림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생략했다고 보이는데, 張世賢의 『圖注脈訣』 등에 자료가 있어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原刊本은 중국에서는 별 인기를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元代에 初刊本이 나온 이래 散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국에서는 『纂圖方論脈訣集成』 原刊本 이후에 더욱 정리되어 출간된 張世賢(明)의 『圖注脈訣』이나 王邦傳(淸)의 『脈訣乳海』 같은 책이 많이 활용되었다.⁷⁾

3) 高文鑄 主篇, 前掲書, pp. 19~23.

4) 韓國醫史學會誌, 15권 No2, 『纂圖方論脈訣集成』 편찬과 朝鮮中期의 脈學의 成就(허중, 안상우)에 저자인 高陽生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다.

5) 洪元植, 尹暢烈 編著, 『增補 中國醫史』, 서울, 一中社, p. 118.

6)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嚴世芸 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6, p. 763. 에 書名만이 전하고 있다.

7) 高文鑄 主篇, 前掲書, p. 21.

조선에서는 『脈經』보다는 『脈訣』의 영향이 훨씬 컸는데, 그 이유는 『脈經』이 三國 이전의 脈診 자료를 종합하여 체계를 이루고 기존 자료를 보존한 공이 크나, 그 내용이 많고 체계가 혼란스러워, 임상에서 간편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널리 읽힌 것은 高陽生의 『脈訣』에 대한 여러 註釋을 한데 모아 元代에 편찬한 『纂圖方論脈訣集成』 原刊本을 許浚이 교정한 것이었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纂圖方論脈訣集成』의 부족한 점을 새로운 여러 서적으로 개량한 반면 조선에서는 許浚의 교정만으로도 오랜 기간 중요한 脈診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許浚의 교정 작업이 매우 정밀하였고 그러한 정밀한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許浚과 조선의 의학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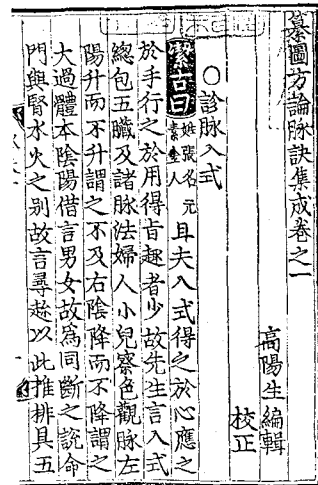
그렇다면 『脈訣』의 註釋書가 여럿 있었는데 왜 元代의 『纂圖方論脈訣集成』이 수입되어 중요 교재로 활용되었는가?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의학도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16세기 초중반까지는 元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시기였기다. 유학뿐 아니라 의학에서도 金元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활용한 시기였기 때문에 元代에 출간된 『纂圖方論脈訣集成』이 조선에 수입되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사용되던 原刊本이 다소 조잡하고 허술하여 후에 許浚의 교정을 거쳐 중요한 脈診書로 활용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서울대 奎章閣에 萬曆四十年(1612)에 內醫院奉教開刊한 帝室圖書之章의 初刊本과 1626년(仁祖 4)에 內醫院에서 王命으로 開刊한 開刊本, 昭和四年(1929)七月十二日에 李王職所藏本을 二依リ謄이 복사한 사본이 있으며, 麗江出版社의 影印本과 金信根의 韓國醫學大系 39卷에 전제되어 있다.⁸⁾

그림 1. 『纂圖方論脈訣集成』



2)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板本

『纂圖方論脈訣集成』은 조선의 醫科시험 取才 교재로 쓰인 중요한 醫書로, 원래의 底本은 六朝시대 高陽生이 편집한 『脈訣』이며, 각종 註釋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중국에서는 元代 初刊本이 출간된 이후 失傳되어 『中國醫籍通考』에 이름만 남아 있고,

萬曆四十年(1612)에 內醫院에서 발간한 初刊本 이후 1626년(仁祖 4) 內醫院에서 王命으로 開刊하였는데 編者는 高陽生이며 許浚을 비롯하여 僉正 李希憲과 直長 尹知微가 監校한 4책의 목판본이다.

이 중 규장각의 1626년(仁祖 4) 內醫院 開刊本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정을 완성한 이후 發刊하기 까지 오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것이 初刊本이 아닐지

8) 미키사카에(三木榮)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다케다(武田) 제약 주식회사의 「杏雨書屋」에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당시가 戰亂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이전에 출간하였다는 기록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12년의 內醫院奉敎開刊本이 初刊本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표 1. 『纂圖方論脈訣集成』의 서지사항

| 항목 | 서지사항 |
|-------|---|
| 서명/저자 | 纂圖方論脈訣集成 / 高陽生(?) 編. |
| 출판사항 | [刊地未詳] : 內醫院 ; [刊年未詳] : |
| 형태사항 | 4卷4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1×16.1 cm, 有界, 10行18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 36×23.2 cm.. |
| 주기사항 | 跋: 萬曆九年(1581)…許浚. |
| 주기사항 | 刊記: 萬曆四十年(1612)…內醫院奉敎開刊. |
| 인기 | 印: 帝室圖書之章. |
| 사부분류 | 子部 醫家類 |

2.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構成 및 主要 內容

『纂圖方論脈訣集成』의 目次를 통해 편제를 살피고 아울러 『圖注脈訣』, 『脈訣乳海』와 비교하여 본서의 構成상 특징 및 중요한 內容을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構成

『纂圖方論脈訣集成』은 43세의 젊은 許浚이 선조의 왕명으로 교정을 시행하고 跋文을 첨부한 처녀작으로, 書名과는 달리 圖解가 없으며 歌訣로 된 343條의 歌訣 이외에는 모두 宋金元 時代 諸家の 脈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內經』과 『難經』을 근거로 歌訣 원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張元素 張璧 父子의 논설을 담은 『潔古老人王叔和脈訣』과 劉元賓의 『通眞子補註王叔和脈訣』, 李嗣의 『脈訣集解(一名 李希范脈訣)』등이 주요 인용서로 사용되었다. 기타 여민수의 『脈訣精要』, 池

大明의 『脈訣註解』, 丁德用, 楊玄操, 虞庶, 無求子(朱肱), 成無己, 玄晏先生(西晉 皇甫謐)의 맥론이 註釋으로 인용되었는데, 대개 『內經』·『難經』·『難經』의 註釋書·『傷寒雜病論』의 條文을 위주로 하고, 『甲乙經』·『諸病源候論』등에서 일부 인용하여 論旨를 전개한 것이다.

『纂圖方論脈訣集成』은 456쪽의 4冊으로, 歌訣 原文 343條文 아래에 「希范曰」·「潔古曰」·「通眞子曰」·「雲岐子曰」등 12명의 註釋과 許浚 자신의 自註 하나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目次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卷[총83쪽·42條文]: 診脈入式

2卷[총129쪽·135條文]

① 五臟六腑(心肝腎脾)

② 左右手診脈

3卷[총125쪽·67條文]

① 二十四脈總論[七表, 八裏, 九道]

② 七表(浮 芤 滑 實 弦 緊 洪)

③ 八裏(微 沈 緩 瀉 遲 伏 濡 弱)

④ 九道(長 短 虛 促 結 代 牢 動 細)

4卷[총113쪽·99條文]

① 診雜病生死候 及 暴病候 ② 形脈相反 ③ 診四時病五行相克脈 ④ 診四時虛實

⑤ 論傷寒 ⑥ 諸病生死脈 ⑦ 仲景曰數脈不時則生惡瘡 ⑧ 察色觀病人生死候 ⑨ 五臟察色候

⑩ 診妊婦 ⑪ 診妊婦漏胎候 ⑫ 診妊婦心腹急痛候

⑬ 診妊婦倒仆損傷 ⑭ 診產難生死候

⑮ 診妊婦傷寒 ⑯ 小兒生死候

[跋文]

이와 같이 『纂圖方論脈訣集成』은 모두 4卷으로 구성되어, 1卷에서는 맥진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양한 주석을 통해 총괄하고 있고, 2卷에서 五臟을 중심으로 장부의 기본적인 특성과 맥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 3卷에서는 다양한 맥상을 七表·八裏·九도로 분류하고, 각각의 맥상과 寸關尺의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脈經』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脈訣』의 가

장 두드러지는 내용상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4卷은 앞에서 살핀 근본적인 내용과 큰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진단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에 교정을 담당한 許浚의 跋文을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張世賢의 『圖注脈訣』과 王邦傳의 『脈訣乳海』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 跋文을 제외하고 대개의 내용이 비슷하며 책마다 구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張世賢의『圖注脈訣』

4卷으로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2卷의 左右手診脈을 4卷診의 雜病生死候 及 暴病候 부분과 합하여 4권에 배치하고 있으며, 말미에 별도로 附方을 첨가하여 24脈 각각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에 어떤 맥에 어떤 처방 하는 식의 圖式的인 구성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한 처방을 쓸 수 있는 상황과 맥상의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하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부분에서 참고가 될 만한 圖解를 첨가하고 있어, 『纂圖方論脈訣集成』 原刊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圖解를 보완할 수 있다.

② 王邦傳의『脈訣乳海』

6卷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성은 역시 비슷하다.

張世賢의『圖注脈訣』처럼 2卷의 左右手診脈을 4卷診의 雜病生死候 及 暴病候 부분과 합하여 별도로 5卷을 만들었으며, 3卷을 두 卷으로 나누어 七表를 3卷으로 하고 八裏와 九道를 4권으로 배치하여 모두 합해 6卷으로 하였다. 다만 5卷에서 左右手診脈 앞부분에 河圖·洛書·八卦의 이론과 圖解를 통해 脈理를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성이 앞의 두 책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 책의 特徵은 註釋에서 스스로의 독창적인 견해를 많이 밝히고, 앞선 책의 문제점을 과감히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纂圖方論脈訣集成』의 主要 內容

『纂圖方論脈訣集成』의 原文은 총 343條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纂圖方論脈訣集成』에서 인용하고 있는 「希范」, 「潔古」, 「通眞子」, 「雲岐子」등 12명의 註釋을 참고하여 主要 內容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卷 診脈入式

脈診하는 구체적인 部位와 方法, 臟腑의 配屬과 三部九候脈, -男女의 차이와 損至脈 四時脈 등을 설명하고 七表·八裏脈을 제시하고 있다.

㉔ 맥진하는 部位

『內經』 『難經』을 거쳐 王叔和의 『脈經』에서 현재 사용하는 氣口脈法의 脈位가 명확하게 결정되고 『纂圖方論脈訣集成』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註釋에서 『難經·三難』을 인용하여 1寸9分の 脈位를 벗어나는 溢覆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계승해 1卷 診脈入式 1條文에서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이라 하여 左手로 血의 盛衰를 살피고 右手로 氣의 盛衰를 살핀다고 하고 33條文에서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라 한 것이다.

脈診하는 부위인 寸口の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20條文에서 ‘掌後高骨號爲關 骨下關脈形宛然’이라 하여 關脈의 위치를 먼저 정한 후 22條文에서 ‘關前爲陽寸口 關後爲陰直下取’이라 하여 寸尺의 위치를 정하였다.

㉕ 脈診하는 方法

6,9,21條文에서 ‘用意調和審安靖, 用心子細須尋趣, 以此推排名尺澤 三部還須子細看’라 하여 脈診하는 자세를 簡潔히 표현하고 原文과 註釋에서 舉按尋·推排, 消息, 上下去來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였으며 10條文에서 ‘若診他脈覆手取 要自看時仰手認’라 하여 스스로의 맥을 잡을 때와 환자의 맥을 잡을 때의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39條文에

서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하여 脈診法을 총괄하고 있다.

㉔ 각 부위별 臟腑配屬

寸關尺 三部에서 살필 수 있는 臟腑에 대해 1條文中에서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 개괄한 후 3~5條文 ‘心與小腸居左 肝膽同歸左關定 腎居尺脈亦如之’과 7~9條文 ‘肺與大腸居右寸 脾胃脈從關裏認 命門還與腎脈同’에서 左右手 寸關尺의 臟腑 配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13~18條文中에서 ‘大腸共肺爲傳送 心與小腸爲受盛 脾胃相通五穀消 膀胱腎合爲津慶 三焦無狀空有名 寄在胸中膈相應 肝膽同爲津液府 能通眼目爲清淨’이라 하여 臟腑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밝혔다.

㉕ 맥진의 구체적인 목적

19條文中에서 ‘智者能調五臟和 自然察認諸家病’이라 하여 맥진의 목표를 간결하게 총괄하고, 33條文中에서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라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尺寸으로 陰陽을 나누어 병의 근원을 살펴야 함을 강조한 이후에, 23~32條文中에서 ‘陽弦頭痛定無疑 陰弦腹痛何方走 陽數卽吐兼頭痛 陰微卽瀉臍中吼 陽實應知面赤風 陰微盜汗勞兼有 陽實大滑應舌強 陰數脾熱并口臭 陽微浮弱定心寒 陰滑食注脾家咎’라 하여 구체적인 實例를 들고 있다.

㉖ 男女에 따른 맥의 차이[男女老少異脈]

2條文中에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하고 註釋에서 “男女一皆 以尺脈爲根本.”이라 하여 남녀에 상관 없이 尺脈을 근본으로 삼으나 男女의 맥이 尺寸의 盛衰가 다를음을 밝혔다.

남자는 陽에 속해 寸脈이 強하고 尺脈이 弱하며, 여자는 陰에 속해 寸脈이 弱하고 尺脈이 強한 것이 정상적인 맥이다. 만약 남자가 여자의 맥을 얻어 d 이와 반대가 되면 陽이 不足한 것으로 병이 內에 있게 되고, 여자가 남자의 맥을 얻으면 太過가 되어 병이 四肢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이 條文을 四時에 따른 맥의 변화로 보아 春夏에 寸強尺弱하고

秋冬에 寸弱尺強한 것을 平脈으로 보아 時令에 따른 脈象의 변화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㉗ 三部九候脈

11~12條文中에서 ‘三部須教指下明 九候了然心裏印’이라 하여 寸關尺 浮中沈의 三部九候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註釋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㉘ 損至脈

『難經』十四難의 損至脈을 인용하여 호흡과 맥박 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질병의 有無(常과 變)와 輕重 死生을 감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4條文中에서 ‘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 三遲二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魂瘥 三至爲遲一二敗 兩息一至死非怪’라 하여 병의 가볍고 심함을 밝혔고, 42條文中에서 ‘血榮氣衛定息數 一萬三千五百通’이라하여 營衛氣血의 경맥 순환과 호흡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또 2卷 ②左右手診脈의 22개條文과 4卷 ①診雜病生死候 及 暴病候의 2개條文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㉙ 四時脈

37~38條文中에서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라 하여 四時의 常脈을 제시하여 맥진에서 時令과의 順逆에 따라 진단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명시하고, 35~36條文中에서 ‘遲冷數熱古今傳 難經越度分明載, 熱卽生風冷生氣 用心指下丁寧記’라 하여 『難經』을 인용해 맥동의 遲數으로 寒熱을 나누고 臟腑를 판별하는 것과 四時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위에서 살핀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條文을 四時로 해석하여 春夏에 寸強尺弱하고 秋冬에 寸弱尺強한 것을 平脈으로 보아 時令에 따른 脈象의 변화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靈樞·禁服』에서 “寸口主中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 名曰平人.”이라 하여 春夏에는 人迎이 다소 크고 秋冬에는 寸口[氣口, 脈口]가 다소 크며, 上下左右가 고르게 균형을 이룬

맥을 平脈으로 명시하여 진맥에서 春夏秋冬에 따라 변화하는 탄력적 平脈을 설정한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1卷 37條文에서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이라 하고 38條文에서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하여 四時 五臟脈의 구체적인 맥상을 간결하게 명시하고 『難經』五難을 인용하여 四시에 따라 서로 다른 平脈을 설정하여 時令에 따라 脈象의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卷 ③診四時病五行相克脈의 4條文에서 ‘春得秋脈定知死 死在庚辛申酉裏 夏得冬脈亦亦然 還於壬癸爲期爾, 嚴冬診得四季脈 戊己辰戌還是厄 秋得夏脈亦同前 爲緣丙丁相刑克, 季月季夏得春脈 剋在甲寅病應極 直逢乙卯亦非良 此是五行相鬼賊’라 하고, ④診四時虛實의 5條文에서 ‘春得冬脈只是虛 更兼補腎病自除 若得夏脈緣心實 還應寫子自無虞, 夏秋月皆如是在前爲實後爲虛 春中若得四季脈 不治多應病自除’라 하여, 구체적으로 脈象이 四시에 順하는가 逆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진단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難經』의 五邪(正邪-正經自病, 虛邪-어머니, 實邪-자식, 賊邪-나를 극하는 것, 微邪-내가 극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四時 五臟脈의 五行 生克과 左右 寸關尺의 六脈의 浮沈遲數 虛實에 따라 병증의 有無, 寒熱虛實, 標本緩急, 進退, 難易, 死生을 나누는 것을 原文과 註釋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㉔ 七表·八裏脈의 提示

40~41條文에서 ‘浮芤滑實弦緊洪 七表還來是本宗, 微沈緩濇遲并伏 濡弱相兼八裏同’이라 하여 맥상을 表裏로 나누어 보는 큰 줄기를 제시한 후에 3卷에서 九道와 함께 자세히 살피게 된다.

9) 『素問·離合眞邪論』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天地溫和 則經水安靜, 天寒地凍 則經水凝泣, 天暑地熱 則經水沸溢, 卒風暴起 則經水波涌而龍起.

10) 『脈經』 24맥(有數散, 無長短)

『脈訣』 24맥(有長短, 無數散)

『東醫寶鑑』 27맥(脈訣 24맥+ 數大散 + 十怪脈)

『瀕湖脈學』 28맥(+ 革脈+ 奇經八脈 諸病脈法)

(2) 2卷

五臟의 구체적인 맥상과 병증을 제시하고 四時와 脈證의 順逆을 설명하고 있다.

대자연은 陰陽五行 운동을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자연의 일부인 인간 역시 그러한 자연 환경과 교류하며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생명 활동이 經脈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9) 맥진은 손가락의 觸覺을 통해 脈動의 位 數 形 勢에 따라 맥상을 감별하여 인체의 病變을 진단하는 것이므로는 인체내 自化작용과 주변 환경과의 對化작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脈의 變化象을 통해 인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의학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맥상은 인체 자체, 인체를 둘러싼 환경, 인체와 환경이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氣口脈法은 寸關尺의 구별로 장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五臟脈을 구별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었으므로 五臟脈을 파악하기 보다는 脈象을 세분한 후 각각의 맥상에 해당하는 병증을 정리 하는데 힘써 맥상의 종류를 28종류까지 구별하는 脈象主病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다.10)

王叔和의 『脈經』에서 기존의 맥상을 24개로 총괄하였는데 여기에는 長脈과 短脈이 없고 數脈과 散脈이 있으며, 『脈訣』에서는 散脈과 數脈이 빠지고 長脈과 短脈이 첨가 되었으며, 七表·八裏·九道로 대별하여 表裏와 標本을 감별하게 된다. 『東醫寶鑑』에서는 『脈經』과 『脈訣』의 모든 맥상인 26맥에 大脈을 첨가하여 27맥과 十怪脈이 기재되었으며, 李時

珍의 『瀕湖脈學』에서는 革脈을 牢脈과 구분하여 28 맥으로 하고 奇經八脈에 대한 내용이 확충하게 된다.

이와 같이 三指氣口脈法은 氣口를 세분하여 장부를 배속함으로써 장부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장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인체 陰陽五行의 운행 상황을 유추한 것이다. 하지만 세분하여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전체를 하나로 보아 체내의 陰陽五行 운행이 어떻게 돌아가며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보다는 세부적 분석에 얽매이게 되고, 맥상을 세분하여 감별하는 데 힘쓴 결과 더욱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경향이 있다. 또 五臟脈으로 오행 운동을 파악할 때는 五神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心身의 변화와 체내외의 순환을 하나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寸關尺을 구분하고 맥상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병증을 파악하다 보니 內外가 교류하고 精神이 변화하는 큰 흐름을 파악하기 보다는 體內의 氣血 변화에 치중하게 된 단점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맥상을 兩綱脈과 四要脈(浮沈遲數) 八大脈으로 요약하여 八綱을 감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東醫寶鑑』에서도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八大脈과 四要脈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맥진은 변증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변증의 바탕인 八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浮沈, 遲數, 有力無力[或 大小]으로 八綱을 파악하고 여기에 氣血의 소통 상태를 나타내는 滑澁을 추가하여 맥상을 파악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四時 五臟脈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전체적인 順逆을 파악하는데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 2卷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3卷

脈象을 24맥으로 규정하고 表裏의 이치로 정리하여 七表·八裏·九道로 분류해 논하고 각각의 구체적 맥상과 그러한 맥상이 나타나는 部位(寸關尺)에 따른 구체적 병증을 기록하였다.

浮, 芤, 滑, 實, 弦, 緊, 洪 등은 七表脈이고 微, 沈, 緩, 濡, 遲, 伏, 濡, 弱 등은 八裏脈이며 長, 短, 虛, 促, 結, 代, 牢, 動, 細 등은 九道脈이다. 이외에 또 『脈訣』에는 없고 『脈經』에는 있는 數脈, 散脈과 후에 첨가되는 大脈이 있어 도합 27맥이다. 이와 같이 맥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27가지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浮, 沈, 遲, 數, 滑, 澁, 細, 大 등 8가지인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더 간략해서 보면 浮, 沈, 遲, 數이고 더 간략해서 보면 浮, 中, 沈이다. 浮, 沈, 遲, 數은 옛날부터 제일 중요하게 보는 맥이다.

이러한 七表·八裏·九道는 『脈經』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脈訣』에서 다양한 맥상을 表裏로 나누어 계통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중경이 맥상을 陰陽으로 나누어 본¹¹⁾ 것이 있었고 후세에 弦脈과 芤脈 등을 근거로 眞僞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맥상을 表裏와 雜病으로 나누어 대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후세에 七表·八裏·九道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나 맥상의 계통을 나눈 큰 의미를 인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임상을 통해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하는 편리성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큰 취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침으로 삼으면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東醫寶鑑·雜病篇·診脈門』【陰陽脈】

“凡脈大浮數動滑此名陽也 沈濡弱絀微此名陰也 凡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 <仲景>”

(4) 4卷

구체적인 맥상에 대해 1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정을 담담한 許浚의 跋文을 첨부하고 있다.

- ① 診雜病生死候 及 暴病候, ② 形脈相反, ③ 診四時病五行相克脈,
- ④ 診四時虛實, ⑤ 論傷寒, ⑥ 諸病生死脈, ⑦ 仲景曰數脈不時則生惡瘡,
- ⑧ 察色觀病人生死候, ⑨ 五臟察色候, ⑩ 診妊婦, ⑪ 診妊婦漏胎候,
- ⑫ 診妊婦心腹急痛候, ⑬ 診妊婦倒仆損傷, ⑭ 診產難生死候, ⑮ 診妊婦傷寒,
- ⑯ 小兒生死候 ⑰ 跋文

특히 形脈相反의 3條文 ‘健人脈病號行尸 病人脈健亦如之 短長肥瘦並如此 細心診候有依稀’에서 長短肥瘦¹²⁾의 形象과 맥의 상관관계를 살핀 것과 診四時病五行相克脈, 診四時虛實에서 時令과 맥의 상관관계를 살핀 것이 의미가 커 보이며, 診妊婦의 62條文에서 ‘肝爲血兮肺爲氣 血爲榮兮氣爲衛 陰陽配偶不參差 兩臟通和皆類例 血衰氣王定無娠 血王氣衰應有體’라하고 63條文 ‘尺微關滑尺帶數 流利往來并雀啄 小

兒之脈已現形 數月懷胎猶未覺’과 64條文 ‘左疾爲男 右爲女 流利相通速去來 兩手關脈大相應 已形亦在前通該’에서 임신과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맥진은 주로 寸口를 觸診하여 얻은 맥상으로 체내의 상황과 변화를 관찰하는 진찰법으로 形色¹³⁾ · 性情¹⁴⁾ · 症狀 · 時令¹⁵⁾등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纂圖方論脈訣集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맥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4卷 ②形脈相反의 3條文 “健人脈病號行尸 病人脈健亦如之 - 短長肥瘦並如此 細心診候有依稀”와 1卷 診脈入式 2條文에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과 註釋에서 환자의 체형에 따라 서로 다른 맥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⑧察色觀病人生死候 ⑨五臟察色候 등에서 색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진맥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앞에서 살핀 男女老少, 形色, 四季에 따라 서로 다른 平脈을 설정하고 形色脈證과 時令의 合一하여 順逆을 살필 줄 아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男女老少 形色 時令에 맞는 平脈(有神有胃氣 하여 和緩한 맥)을 기준으로 常과 變, 順과

12) 『東醫寶鑑·雜病篇·診脈門』【肥瘦長短異脈】

“凡脈肥人責浮瘦人責沈肥人當沈今反浮瘦人當浮今反沈故責之盖肥人肌膚厚故脈沈瘦人肌膚薄故脈浮<仲景>○肥人肉厚脈宜沈結瘦人肉薄脈宜浮長<入門>○人形短脈亦短形長脈亦長反此則凶<入門>○人性緩脈亦緩性急脈亦急反則病<正傳>”라고 하여 肥瘦 長短 性情 등에 따라 맥진을 달리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13) 許浚, 『東醫寶鑑』(서울: 南山堂, 1994), p. 72.

『身形藏府圖』“朱丹溪曰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而況 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14) 『素問·五藏別論』

“凡治病必察其下 適其脈 觀其志意 與其病也.”

『素問·經脈別論』

“人之居處 動靜 勇怯 脈亦爲之變乎? …… 凡人之驚恐志勞動靜 皆爲變也. ……故口 診病之道 觀人勇怯 骨肉皮膚 能知其情以爲診法也.”

15) ① 『素問·四時刺逆從論』

“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② 『素問·脈要精微論』

“春日浮 如魚之游在波, 夏日在膚 泛泛乎萬物有餘, 秋日下膚 蟄蟲將去,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

逆, 太過와 不及을 살피 平脈, 病脈, 질병의 輕重, 질병의 進退, 死生을 감별하는 것이 맥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책끝에는 1581년(宣祖 14)에 쓴 許浚의 跋文이 있는데 “六朝에 와서 高陽生이란 者가 있어서 『脈經』등을 剽竊해 歌訣을 만들어서 誦習에 편의하도록은 하였으나 그 詞旨가 비천해서 그 本眞을 상실하였으므로 선현들이 이에 탄식해서 明辯한 것이다.¹⁶⁾

우리 國初에는 醫術이 荒廢해서 『脈經』의 全書도 보지 못하고 오직 講典에 나타난 『脈訣』로서만 診脈하는 者의 方道로 하는데 그것도 舛錯이 많음을 병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聖上께서는 이런 方技에까지 염려해 주셔서 하루는 臣에게 『纂圖脈訣』은 文註에 오류가 있으니 교정을 하고 跋文을 쓰라고 하시었다. 그 명령을 받아 나는 주야로 몰두해서 한 두 가지를 교정하였으니 성명이 未詳한 것은 註를 달아서 명시하고 文意가 紊亂한 것은 圈을 쳐서 斷定하며 湯이나 丸의 이름에 陰이 陽으로 豕가 亥로 와전된 것을 고치고 若干處를 付標해서 進上을 하였다.”고 그 監校하여 출판한 경위를 말하고 있다.

또 “사람의 맥은 經絡이고 국가의 맥은 紀綱이다. 紀綱이 서지 않으면 예법이 무너지고 社稷이 위태로워지며, 經絡이 통하지 않으면 表裏가 막히고 陰陽의 조화가 흐트러져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여 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3. 『纂圖方論脈訣集成』의 特徵 및 意義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纂圖方論脈訣集

成』의 特徵과 意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纂圖方論脈訣集成』의 特徵

『纂圖方論脈訣集成』의 내용을 바탕으로 許浚의 교정 작업과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校訂 작업의 特徵

許浚의 교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 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許浚이 직접 교정한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原刊本이 散失되었고, 왕에게 올릴 때 加筆로 표시한 것은 발간할 때 수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許浚이 한 교정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을 분명히 하며, 설명이 필요한 곳에 주를 달아 책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었다.¹⁷⁾

『纂圖方論脈訣集成』의 내용과 許浚의 跋文으로 보아 교정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脈診書 근거로 서로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다.

② 노출된 이름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주를 달고 인용된 註家를 분명히 밝혀 기록했다.

③ 글의 흐름이 어지러운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서 문장을 나누어 명확히 했다.

④ 처방의 이름 가운데 陰陽이 바뀐 오류, 글자가 비슷해서 잘못 쓴 오류를 일일이 바로잡아 표시하였다.¹⁸⁾

⑤ 비록 “1권의 34條文” 한 條文뿐이긴 하지만

16)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p. 238.에서 “이 구절은 분명히 戴起宗의 작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았다.

『脈訣』이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했으나 문장이 천박하고 적지 않은 오류가 있어 원대의 戴起宗은 『脈訣』의 오류를 바로잡아 『脈訣刊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脈訣』의 내용을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중장경』, 『脈經』 등의 원 출처와 비교하여 바로 잡은 책이다.

17) 다른 판본에는 다르게 써져 있다는 것을 일일이 표시했으며, 글의 뜻이 모호한 부분은 작은 글로 주를 달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오류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들기도 하였다.

『東醫寶鑑』과는 달리 스스로 註를 달아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⑥ 原刊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圖解가 校訂本에 없는 것으로 보아 許浚이 교정할 때 삭제했거나 그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단순히 문구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여러 醫家의 맥진서를 총괄하여 교정한 것으로, 선조의 명에 따라 1581년에 교정을 끝내고 1612년에 인쇄한 校正本을 출간하게 된다. 이후 조선에서는 모두 이 校正本을 이용하였고, 이후 가장 중요한 맥진서로 조선시대 내내 중시되었다.¹⁸⁾

『纂圖方論脈訣集成』이 許浚의 교정을 거쳐 조선의 대표적인 脈診書로 자리 잡은 데 비해, 중국에서는 별 인기를 끌지 못해 原刊本이 출간된 이후 散失되어 이름만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이후 『纂圖方論脈訣集成』(1349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戴起宗의 『脈訣刊誤(集解)』, 張世賢의 『圖注脈訣』, 王邦傳의 『脈訣乳海』 등 여러 서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許浚이 한 교정 작업이 정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許浚이 한 교정 작업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註를 달아 뜻을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 脈診의 紀綱을 바로 잡은 것이었다. 이러한 교정 작업은 經典에 입각하여 일일이 原來 出典과 비교하면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許浚이 의학 經典의 정신에 충실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許浚의 고증자세는 매우 인상적일 뿐 아니라 후에 『東醫寶鑑』을 편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2) 내용상 特徵

『纂圖方論脈訣集成』의 3卷에서는 다양한 맥상을 七表·八裏·九道の 24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맥상과 寸關尺의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脈經』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脈訣』의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상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七表·八裏·九道는 다양한 맥상을 表裏로 나누어 계통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중경이 맥상을 陰陽으로 나누어 본 것이 있었고²⁰⁾, 후세에 弦脈과 托脈 등을 근거로 眞僞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맥상을 表裏와 雜病으로 나누어 대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후세에 七表·八裏·九道에 대해 논란이 부분하나, 맥상의 계통을 나눈 큰 의미를 인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임상을 통해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하는 편리성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큰 취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침으로 삼으면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纂圖方論脈訣集成』의 意義

『纂圖方論脈訣集成』 내용을 바탕으로 醫史學적, 臨床的 意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醫史學的 意義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高陽生의 『脈訣』은 임상적인 활용가치가 높았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주석을 달게

18)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跋文」, 여강출판사 영인본, pp. 458~459.

19) 崔守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82.

20) 『東醫寶鑑·雜病篇·診脈』 【陰陽脈】

“凡脈大浮數動滑, 此名陽也. 沈澁弱弦微, 此名陰也. 凡陰病見陽脈者, 生陽病. 見陰脈者死「仲景」”

되고, 이러한 註釋을 한데 모아 편찬한 여러 註釋書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여러 註釋書 중에 『纂圖方論脈訣集成』(1349년)은 일찍이 조선에 수입되어 醫科시험의 취재 교재로 채택된 이후 조선 후기까지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의학도가 診脈의 기초를 이 책을 통해서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脈診書로서 그 실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纂圖方論脈訣集成』은 수많은 脈診書 중에서 유독 중요한 맥진서로 채택되어, 조선시대 내내 의과시험 取才 교재로 활용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므로, 이 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脈診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脈經』 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脈診은 두 가지 흐름인, 『脈經』의 歌訣化와 簡略·補完의 방식을²¹⁾ 조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脈經』의 어려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纂圖方論脈訣集成』에서 찾아 볼 수 있고, 『脈經』의 핵심을 추려내어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脈經』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은 『東醫寶鑑』의 진맥 관련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纂圖方論脈訣集成』과 『東醫寶鑑』의 맥진 부분이 상호 보완하며 조선시대 脈診의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東醫寶鑑』이 편찬된 이후에도 『纂圖方論脈訣集成』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脈診書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醫史學的 가치를 큼을 알 수 있다.

(2) 臨床的 意義

한의학에서 진단은 望聞問切의 四診을 통해 얻은 정보로 체내 陰陽五行의 변화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四診 중에서 脈診에 대한 연구가 다른 세 가지 진단법보다 월등히 더 많고 중시되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맥진을 정밀하게 활용하기가 생각만큼 수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한 의학의 대부분이 그러 하듯이 하나의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통체적인 시각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밀한 실기 능력을 함께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글로는 다 표현한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을 체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상에서 맥진의 관건은 觸覺을 통해 정확한 맥상을 파악하는 실기 능력과 그렇게 파악한 맥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판단 능력에 있기 때문에, 맥진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脈經』과 같이 내용은 방대하나 체계가 혼란스러워 虛煩한 느낌을 주는 脈診書 보다는 『脈訣』과 같이 내용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歌訣로 되어 簡潔하고 암기하기 쉬운 脈診書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脈訣』이 비록 歌訣로 되어 있어 가벼워 보이지만 단순한 縮約이 아니고 사실은 맥의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 그 뜻이 심오하다.²³⁾ 또 脈診의 핵심을 縮

21) 高文鑄 主篇, 前掲書, p. 21.

22) 박찬국, 『한의학 특강』, 한빛출판사, pp. 192-194, “모든 사물은 음양오행적 변화를 하고 있다. 만물은 기를 발산하느냐 또는 기를 저축하느냐를 통해 양과 음으로 나누고, 자체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木火土金水라는 오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望聞問切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음양오행의 변화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望聞問하여 병을 파악한 뒤 정말로 몸의 상태가 그러한가 몸 속을 진단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로 切診인 것이다.”

23) 六朝시대 高陽生이 編纂한 것으로 맥진의 핵심을 추려내어 七言絶句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脈經』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였으니 七表·八裏·九道脈에 대한 이론이 그러한 例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脈訣』은 단지 『脈經』의 내용

約하여 歌訣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활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임상적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3卷에서 제시한 七表·八裏·九道는 脈象을 24맥으로 규정하고, 表裏로 계통을 세워 대별하는 새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脈經』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다양한 맥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맥상을 陰陽의 이치에 따라 表裏와 雜病으로 나누어 대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潔古의 註釋에서 左右로 나누어 陰陽升降의 이치로 설명하고 맥상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과 처방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脈訣』은 간략한 歌訣이기 때문에 가법계 보이지만 사실은 맥의 이치가 숨겨져 그 뜻이 深奧하다. 이와 같이 간략한 歌訣로 되어 있어 기억하기가 쉬우면서도 깊은 뜻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활용가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纂圖方論脈訣集成』은 초심자가 쉽게 접근하여 脈診의 핵심을 암기하고 임상에서 체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이었고, 『東醫寶鑑』은 『纂圖方論脈訣集成』의 부족한 이론 체계를 보완하고 방대한 분량의 구체적인 병증과 맥상을 기록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東醫寶鑑』이 편찬된 이후에도 『纂圖方論脈訣集成』이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중요 교재로 활용될 수 있었고 두 책이 相補하며 조선의 맥진 뼈대를 이루어 독자적인 의학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III. 結論

脈診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脈訣』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脈訣』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脈診書로 활용된 『纂圖方論脈訣集成』을 연구하였다. 張世賢의 『圖注脈訣』과 王邦傳의 『脈訣乳海』를 주요 참고 자료로 하여, 歌訣 原文과 註釋들을 비교 검토해 내용을 살피고, 그 特徵과 意義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纂圖方論脈訣集成』은 일찍이 조선에 수입된 후, 許浚의 정교한 校訂을 거쳐, 조선시대 내내 醫科시험 취재 교재로 활용된 『脈訣』 註釋書로, 조선시대에 의학도가 診脈의 기초를 습득한 의미 깊은 책이다.

2. 『纂圖方論脈訣集成』은 비록 歌訣로 되어 있어 가벼워 보이지만 단순한 縮約이 아니고 사실은 맥의 깊은 내용이 숨겨져 그 뜻은 深奧하다. 이와 같이 脈診의 핵심을 숨겨두고 있으면서도, 歌訣로 되어 있어 기억하고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임상적 활용가치가 높다.

3. 七表·八裏·九道 이론은 脈象을 表裏로 계통을 세워 24맥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이는 『脈經』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다양한 맥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맥상을 陰陽의 이치에 따라 表裏와 雜病으로 나누어 대별한 것은 임상적 의미가 크며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許浚은 여러 註家の 註釋을 醫學 經典을 근거로 『纂圖方論脈訣集成』 原刊本을 교정하고 그 出典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책의 엄밀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교정 작업이 후에 『東醫寶鑑』을 편찬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5. 『東醫寶鑑』이 비록 중국의 여러 醫書를 編纂하였다고는 하나, 『內經』 이후 질병 중심으로 흐른 중국 의학을 養生까지 포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을 단순히 要約한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맥진의 핵심을 간략한 歌訣로 요약하여 임상의 편리성을 도모한 실용적인 맥진서라 할 수 있다.

독특한 체계로 발전시킨 것과 같이, 『纂圖方論脈訣集成』도 기존의 서적을 校訂한 것이긴 하지만 脈診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조선 의학의 실용적인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實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纂圖方論脈訣集成』은 脈診의 핵

심을 숨췄한 歌訣과 체계적인 註釋으로 구성되어 『東醫寶鑑』과 함께 조선시대 脈診의 체계를 확립한 책으로, 醫學史的으로나 臨床的으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醫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許浚 校訂: 『纂圖方論脈訣集成』, 규장각의 內醫院 開刊本, 1626(仁祖 4).
2. 金信根: 『韓國韓醫學大系』(39卷),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9.
3. 許浚 校訂: 『纂圖方論脈訣集成』, 서울, 麗江出版社, 1994.
4. 吳棋鎬: 『王叔和脈訣』에 포함된 張世賢의 『圖注脈訣』, 서울, 成輔社, 1995.
5. 裘吉生: 『脈訣乳海』, 王邦傳(1891) 編纂, 珍本醫書集成(14卷중 3卷), 서울, 醫聖堂, 1994.
6. 王叔和 原著 李炳國 譯: 『王叔和脈經』, 서울, 芙丑文化社, 1985.
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2.
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2.
9.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1998.
10.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13. 朴炘: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대성문화사, 1996.
14. 李時珍 原著, 朴炘: 『國譯 瀕湖脈學』, 서울, 大星出版社, 1992.
15.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出版社, 2001.
16. 高文鎬 主篇: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
17. 미키사카에(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일본, 1962.
18.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19. 嚴世芸 編: 『中國醫籍通考』, 상해중의학원 출판사, 1996.
20. 崔守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1. 박찬국: 『한의학 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22.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23. 허중, 안상우: 韓國醫史學會誌, 15권 No2, 『纂圖方論脈訣集成』편찬과 朝鮮中期的 脈學의 成就.